



남상우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스포츠사회학 전공
사회이론에 관심
sangwoo@kspo.or.kr

학교운동장의 젠더 역학: 학교운동장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만큼 뛰어 놀지 않을까?” 고등학교 교사 시절, 항상 궁금하던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여학생이 꼭 남자애들 처럼 뛰어야 하나요?”라고 반문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체육교사로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양이 남학생들의 반만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가졌던 의문이었다. 체육수업 때 보면, 남학생들은 운동장 중심에서 폐를 지어 공을 차는 반면, 여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 그늘을 찾기 바빴다. 하루는 한 여자 아이에게 물어봤다. “왜 안 뛰니?” 그 여학생이 답했다. “살 타요.” “운동장이 프라이팬이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남성에 비해 신체활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이유에서부터 땀을 낸 후 씻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시설 차원의 이유, 운동 종목이 여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교육과정 측면의 이유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런 이유에 더하여, 스포츠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성으로 이해되는 ‘젠더(gender)’ 차원의 설명방식을 제안한다. 이 글은 그러한 젠더가 특히 학교와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운동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출처: shutterstock

엘리베이터에서 느낀 곤란함: 젠더 개념의 간략한 이해

젠더는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각된 차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의 구성요소다. 더불어 이는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방식이기도 하다. 때문에 젠더는 다양한 표상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상징체계, 그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규범적 개념, 여러 사회제도와 조직, 그리고 주관적인 정체성처럼 다면적인 장에서 작동한다.¹⁾

아파트 안이다. 17층에서 내려가던 중 15층에서 아이를 안은 엄마가 탔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니,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나를 바라본다.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반응을 해줬다. 내 반응에 아이가 몸을 뒤척이니 엄마나 나를 쳐다봤다.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아이와 관련한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피드백이 없다면 어색함을 견디며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성별을 모르겠다. 두 살쯤으로 보이긴 하는데, 남아인지 여아인지 분간이 어렵다. 분홍색을 입혔으면 여아이겠거니 하겠는데, 옷도 흰색이다. 남자 아인가? 괜히 “애가 씩씩하게 생겼네요”라는 피드백에 “딸인데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민망해 어찌나 걱정도 된다. 그때다. 이런 애매한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던지, 우물쭈물하고 있던 나에게 아이 엄마가 먼저 말한다. “18개월이에요, 딸이고요.”

오호라, 성이 구분되었다. 날려줄 피드백은 많다. ‘여아’와 관련하여 기대되고 허용되는 사회적 규범 멘트는 차고 넘친다(예쁘네요, 미스코리아 되겠네요 등). 남아라면 또 다른 피드백이 통용된다(씩씩하게 생겼네요, 장군 감이네요 등). ‘젠더’ 회로가 작동한다. 염색체 형태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성(sex)과 달리, 젠더는 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사회적 성으로 이해된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나 “여성스럽지 못하게!”처럼 ‘○○답다’란 인식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적 도식이다.

1) Scott, J. (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for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 1053-1075.

과시하려고, 혹은 지키려고: 체격과 젠더, 신체활동의 관계

체형, 신체 크기, 자세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공간에 위치되거나 그곳을 점유하는 모든 행태는 본질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주고받는 일이다.²⁾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더니 더 죽으라고 뛰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긴 한 체육교사가 쉬는 시간에 내게 던진 말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쭙니, 중학교 때 애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고등학생이 되니 힘이 넘치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것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실상을 모르는 나로서는 그러려니 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들의 학년별 체격 발달표를 보게 되었다.

발달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체격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이다(2학년까지도 그 변화는 계속 나타난다). 이 시기에 남학생들은 키와 몸무게는 물론 어깨와 가슴도 딱 벌어진다. 여학생의 경우도 다양한 성적 발달 징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중학교 때와는 다른 모습을 형성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1개월 전에 중학생이던 고1들에게 중학생 이야기를 하면 ‘애들’ 취급을 한다. 개구리는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더니.

중요한 점은 체격의 변화가 가져오는 젠더 변화다. 남학생들은 전보다 더 남성다운 골격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남자’로 간주한다. 반대로 여학생들은 여성다운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게 ‘여성다운’ 행동을 주문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흥미롭게도 신체활동 양과 연결된다. 즉,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증가한 남성성을 과시하고자 보다 많은 활동량을 보이지만, 여학생들은 보다 성숙된 자신의 여성다움을 지키고자 활동량을 급격히 줄인다”³⁾는 것이다.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여자가 왜 축구를!: 학교에서의 차별적 젠더 구성

남학생들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기꺼이 부상을 감수하려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문화자본으로서의 남성다움을 획득하는 방법인데, 이는 체육수업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유용하기까지 한 전략이다.⁴⁾

학교, 특히 체육수업에서 젠더는 차별적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개입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⁵⁾

가장 주요한 첫 번째 방식은 교육과정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해 설정되는 교육과정, 특히 체육수업에서 다루는 종목은 젠더 편향적이다. 둘째,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갖게 되는 상호작용(피드백)이다. 특정 사건이나

2) Light, R., & Kirk, D. (2000). High school rugby, the body and the reproduc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Sport, Education & Society*, 5(2), 163-176.

3) 이창섭, 김재운, 남상우 (2000). 청소년의 연령별 체격 발달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지*, 18(1), 23-29.

4) Wellard, I. (2002). Men, sport, body performance and the maintenance of exclusive masculinity. *Leisure Studies*, 21, 235-247.

5) 남상우, 이창섭 (2006). 학교에서의 신체활동과 젠더의 재생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441-458.

현상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젠더를 차별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학생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문화다.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인식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피안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다.

남학생에게는 격렬한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종목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여학생에게는 다소 정적인 종목이 수업에 반영된다. 축구나 농구가 남학생에게 해당한다면, 체조와 줄넘기는 여학생의 종목이 된다. 설령 여학생이 농구를 해도 스탠딩 슛으로만 수업내용이 한정된다. 자체(자율체육)가 주어지면, 남학생은 축구공을 가지고 운동장 중앙으로 가 온 공간을 점유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벤치에 앉아 있거나 그들을 찾아 피구나 배드민턴을 한다. 여학생이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체육교사는 말한다. ‘여자가 무슨…….’

부상을 대하는 학생과 교사의 태도도 기존의 젠더 관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에게 부상은 ‘마땅히 당하고 이겨내야 할 통과의례’로 경험된다. 그래서 남학생이 부상을 당해도 교사는 ‘아프나? 언녕 애 데려가서 치료 받게 해라. 짜식,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쫌으로 대응한다. 반면 여학생에게 부상은 ‘피해야 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 그래서 수업 중 다치면 절대로 사소하게 관리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남자라면 부상쯤은 혼자 이겨내야 하고, 여자는 그러한 경험이 보살펴져야 함을 강화한다. 이처럼 정식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으로 특정 성향이 길러지는 현상을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한 구성이라 칭한다.

중심화와 주변화: 학교 운동장에서 형성되는 젠더 질서

운동장은 낯선 기운과 함께 경쟁력을 키우고 힘을 기르는 곳이자 통제되는 힘, 즉 규제와 규칙에 대한 복종의 학교다.⁶⁾

젠더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학교 운동장에서 잘 나타난다. 운동장은 젠더 현상을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친구들 간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젠더와 관련된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관찰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아이들이 우정이나 리더십, 애정관계, 외모나 경쟁, 역량, 권력을 향한 개인적 감각 등의 규범을 탐색하는 곳”⁷⁾이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운동능력과 신체특성이 공간 내 주류와 비주류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실과는 다르게 운동장에서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과 같은 매개체로 독특한 젠더 질서가 형성된다. 그 젠더 질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남성다움의 중심화와 여성다움의 주변화’⁸⁾ 다. 즉, 학교운동장의 중심을 차지하는 존재는 남자다운 성향을 신체활동으로 보여주는 이들인 반면, 운동장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자(애) 같은’ 행동을 보이는 존재인 것이다.

6) 박노자 (2009). 씩씩한 남자 만들기: 한국의 이상적 남성성의 역사를 파헤치다. 서울: 푸른역사, 27.

7) Boyle, D. E., Marshall, N. L., & Robeson, W. W. (2003). Gender at play fourth-grade girls and boys on the playgroun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0), 1326-1345.

8) 남상우 (2008). 주변(周邊)대 중심(中心): 스포츠에서의 주변화 현상과 속성의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7(2), 95-107.



출처: shutterstock

운동장의 중심과 주변이 이렇게 젠더의 특징에 따라 질서로 잡히는 기저에는 학생들이 지니는 독특한 집단 의식이 자리한다.⁹⁾ 크게 세 가지 의식이다.

첫째, 운동장의 주인은 남자라는 주인(主人) 사고방식이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운동장에서 주인과 손님으로 간주하는 인지 도식을 뜻한다. 즉 운동장이란, 다름 아닌 ‘운동을 하는 곳’으로서 여자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남자가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공도 안 주워오고, 수업 때 잘 나오지도 않고 뛰지도 않기에 운동장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일종의 ‘운동장에서의 자격 문화’¹⁰⁾다.

둘째, 운동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규범이 있다는 정상(正常) 사고방식이다. 이 도식에 따르면 운동장의 중심은 우선 축구를 잘하는 몸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고, 체육시간에 가장 먼저 나와 소리 치고, 땀도 흠뻑 흘릴 수 있는 행동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남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드러냄 문화’라 한다. 이와 달리 여학생들은 ‘부상을 겁내고’, ‘조숙하게 행동하고’, ‘체육시간에 햇볕을 피하고’, ‘최대한 땀을 덜 흘리는’ 행동 양식을 취하는 ‘울타리 문화’를 형성한다. 운동장에서 취해야 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9) 남상우 (2016). 운동장에서의 젠더 중심화와 주변화: 중학생들의 체화된 젠더 질서 사고방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3), 133-151.

10) Hickey, C. (2008).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hyper-masculinity in schools. Sport, Education & Society, 13(2), 147-161.

나가줘야 한다.

셋째, 진정한 남자라면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허락해주어야 한다는 관용(寬容) 사고방식이다. 한 마디로 ‘이번엔 우리가(남자) 너희들이 운동을 사용하도록 해줄게’란 사고방식인 것이다. 즉, 운동장의 주인은 운동을 잘 하고 어울리는 남자의 것이니, 여기를 사용하려면 남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이 허락과 관련해서는 남자나 여자체육교사도 상당 부분 동조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운동장 중앙에서 피구를 하려고 할 땐 언제나 교사에게 동의를 구하고, 교사는 (이미 축구로 운동장을 차지한) 남학생들에게 운동장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동장의 주인은 남학생들’이라는 상징자본이 형성되고, 여학생들은 그것을 오인하며 동의한다. 젠더에 따른 운동장에서의 중심화와 주변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된다.

선생님은 여자잖아요!: 지도력의 차별적 인식에 개입하는 젠더 편견

여자감독은 어떤 공간에선 보다 남성적으로 보이거나, 필요할 때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혹은 정 반대의 논리를 요구하는 가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등의 실천을 해야 한다.¹¹⁾

학교체육에서 작동하는 젠더 역학은 비단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체육교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여자체육교사들이 그렇다. ‘여자들은 운동을 못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부터 ‘운동을 잘 하는 것은 여성스럽지 못 하다’라는 젠더 편견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여자체육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 행동양식을 고수한다. 첫째,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이 공격적이 되거나 둘째, 그냥 운동 잘 못하는 여성으로서의 행동으로 순응한다.

전자의 경우를 우리는 ‘젠더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체육수업에서 남학생들을 ‘이겨먹기(여교사들의 표현이다)’ 위해서는 남학생들보다 더 공격적인 역할에 몰입하며 일종의 연극수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평소 익숙하지 않던 욕도 더 격하게 하고, 기합도 더 세게 준다. 그러면서 ‘나를 여자로 보면서 무시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몇몇 여자체육교사의 이야기로 이해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젠더 수행은 운동부를 맡고 있는 여자코치나 감독들에게서 만연되어 나타난다 한다.

여자이기에 지도력에 있어 의심을 받고, 남학생들을 휘어잡지 못하리라 의심 받고, 그러다보니 지도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특히 주로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가부장적 특징이 강하게 배태된 학교체육 현장에서 여성다움이라는 젠더 성향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자체육교사나 여자감독은 ‘남자보다 더 남자답게 가르치기’ 위한 상황에 놓인다. 물론 항상 그렇게 남성의 역할에 몰두할 수 없기에, 그 외의 상황에 직면하면 여교사(감독)들은 젠더 가면을 바꿔 쓴다.

11) 남상우 (2014). 운동부 여성감독의 갈등경험과 젠더 수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3), 47-65.



출처: shutterstock

결론: 여학생 신체활동 정책은 젠더의 이해로부터

여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정책적 연구와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례 연구, 나아가 설문조사와 최근엔 여학생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여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 노력의 방향과 폭은 매우 넓고 깊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마땅히 신체활동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 권리가 지금껏 간과되었다. 되찾아주어야 한다. 둘째, 소수자 기준의 법칙이다. 이는 장애인체육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운동하기 편한 환경이면, 당연히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편할 수 있기에 모든 기준을 그 소수자에게 맞춘다는 원칙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젠더의 이해다. 젠더라는,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성향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신체활동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은 모두 운동을 좋아하고 잘 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나뉜다. 가장 상층에 지배적 남성성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공모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주변적 남성성 등으로 구분된다. 축구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지배성이 있는 반면, 운동을 못 하거나 여자아이들이 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에 없는 학생들은 주변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젠더(남성다움)’가 아닌 ‘성(남성)’으로만 접근하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감수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여학생의 경우도 그렇다. 남녀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남학생과 여학생 합반으로 체육수업을 하는 방식이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까? 앞서 언급했듯, 여학생은 자신의 성숙한 여성다움을 보존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젠더 성향이 고려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성성의 기존 관념을 신체 활동과 연관시켜 어떻게 재정립할지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여성성을 유지하고 좀 더 빛내줄 방향으로의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만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다.

결국, 학교체육이나 전체 스포츠 문화 영역에서 여성의 신체활동 증진은 젠더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텍스트(text)’뿐만이 아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컨텍스트(context)’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면밀한 신체활동 증진 방안이 고안될 수 있다. 젠더가 중요한 이유다.